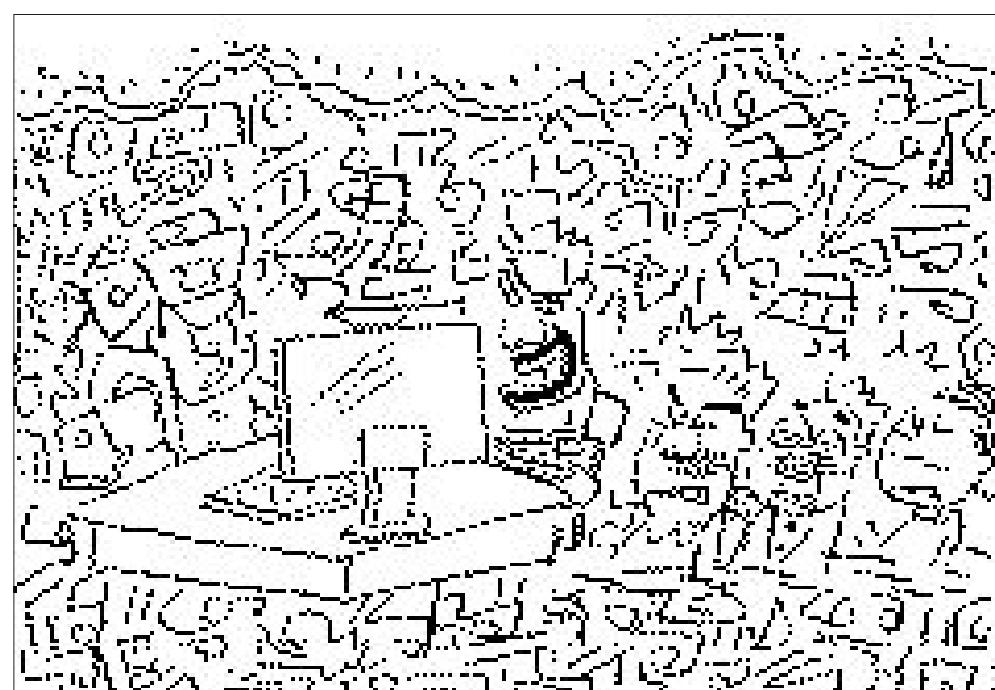

 숨은그림찾기 <90>


(찾) (아) (보) (세) (요) 사람 옆 얼굴, 송사리, 새집, 담배파이프, 서클록, 바늘, 고추, 종이비행기, 제비, 병따개

도둑도 할 말이 있다

경찰 : 이봐! 직업 뭐야?
도둑 : 빈부 차이를 없애려고 밤낮으로 노력하는 사회 운동가입니다.

경찰 : 넌 꼭 혼자 하는데 짚은 없나?
도둑 : 세상에 믿을 놈이 있어야지요.

경찰 : 도둑은 휴가도 안 가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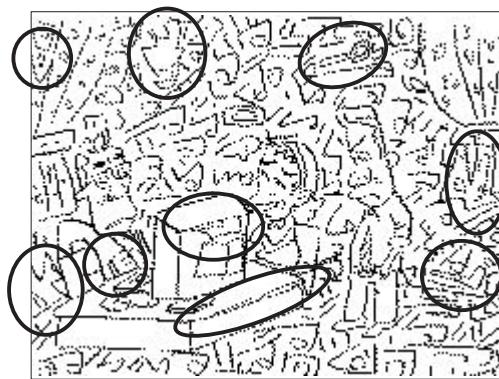
도둑 : 잡히는 날이 휴가죠.

경찰 : 아들 학적부에 아버지 직업은 뭐라고 적나?

도둑 : 귀금속 이동센터 운영

경찰 : 가장 슬펐던 일은?

도둑 : 내가 훔친 시계를 마누라가 팔려 갔다가 날치기 당했을 때죠.



지난주 정답

담배파이프, 사람 옆 얼굴, 서클록, 펜촉, 열대어, 바늘, A자, 병따개, 고추

그림 속에 숨겨진 사물들을 찾아보세요. 찾은 사물을 그림에 표시한 후 매주 화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 상품권(2만원)을 드립니다.

▲보내실곳 :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당첨자 : 이순하(광주시 서구 풍암동) 이영천(광주시 동구 지산동)

아하! 오늘의 바로 그날

인간의 한계 어디까지… 100m 육상 기록 경신

지난 2002년 9월 15일,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의 탄생을 축하하며 환호했다. 미국의 팀 몽고메리가 국제 육상연맹 그랑프리 대회 남자 100m에서 9초 78을 기록, 3년 만에 세계 신기록을 갈아치웠기 때문이다.

당시 팀 동료인 모리스 그린이 1999년 세운 종전 기록 9초 79를 0.01초 앞당긴데 지나지 않지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았는데 환호하는 사람들이 많다. 인간 한계에 대한 논쟁이 끊기질 않는 것이 육상 남자 100m다. 세계 기록이 바뀔 때마다 '인간 한계는 어디까지인가?'라는 제목의 기사도 끊임없이 언론을 장식했다.

100m 세계 기록은 공식 계측이 이뤄진 1912년 스트흘롭을 올림픽에서 노들드 리핀코트(미국)이 작성한 10초 6. 1968년 멕시코올림픽에서 짐 하인스(미국)가 9초 95로 10초 벽을 깼다. 56년 뒤에 10초 벽이 깨질 만큼 당시만 해도 10초의 벽은 '인간의 한계'였다. 하지만 이후 세계 기록은 끊임없이 바뀌었다.

1991년 칼 루이스(미국)가 9초 96으로 9초 9벽을, 1999년에는 모리스 그린(미국)이 9초 79를 찍으며 9초 8대에 진입했다. 모리스 그린의 기록은 특수한 옷, 신발 등 육상 장비의 현대화 등 스포츠 과학의 발달에도 3년동안 깨지지 않았다. '인간의 한계는 여기까지'라는 목소리도 높았다.

팀 몽고메리의 기록 경신이 그만큼 값진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몽고메리는 출발 신호가 울린 0.014초만에 스타트 블록을 박차고 나갔다. 반응시간이 빠른데다 기록 인정 한계치인 2m의 뒷바람도 도움이 됐다.

'신의 입김' 때문일까. 그는 '벽'을 넘어섰다. 3년 뒤 이 벽은 아사파 파울(25·자메이카)이 허물었다. 출발 반응 시간은 0.150초, 순간 바람은 초속 1.6m. 이후 그는 지난 10일 스포츠 과학자



팀 몽고메리가 지난 2002년 9월 15일 100m 세계 기록을 경신할 때의 모습(위). 지난 10일 세계 기록을 또다시 경신한 아사파 파울.

들이 인간 한계라고 뜻을 박았던 9초 75대의 '벽'을 또다시 넘어섰다.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의 기록은 9초 74. 신은 이번에 1.7m의 입김을 불어넣었다.

인간의 한계는 어디까지 갈까. 언제쯤 신의 입김은 또다시 불까.

/김자기자 dok2000@kwangju.co.kr

81. 세계 '3대 테너'로 불리는 성악가가 지난 6일 새벽 71세를 일기로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지난 1961년 푸치니 오페라 '라 보엠'의 로돌포 역으로 오페라 무대에 공식 데뷔했고 수많은 오페라와 다양한 무대 활동을 통해 세계 최고의 테너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 ①루치아노 파바로티
- ②플라시도 도밍고
- ③호세 카레스
- ④엔리코 카루소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12일(음 8월 2일己酉)

子 36년생 협력자는 나타나지만 큰 도움은 못 준다. 48년생 좋은 인연이 생길 수도 있으나 멀을 보내보다. 60년생 말과 행동을 조심해라. 72년생 조고는 있으나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 84년생 문서상에로 발생하니 꼼꼼하게 살펴라. 행운의 숫자 : 10, 42

丑 37년생 놀랄 일은 있으나 안심해도 된다. 49년생 눈물과 웃음이 있으나 나중에는 웃는다. 61년생 과도한 육심이 없는 한 평안하다. 73년생 절대로 친구와는 새로운 사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85년생 잘못 짠주가 끝까지 속 썩혔다. 행운의 숫자 : 15, 33

寅 38년생 지루한 시간은 지나고 기쁠의 시간이 온다. 50년생 미운 사람이나 나에게 도움을 준다. 62년생 자신의 친구들도 살펴봐 좋은 풍운을 드렸다. 74년생 좋은 하루가 되리니 근심 걱정을 다 버려라. 행운의 숫자 : 22, 16

卯 39년생 분수를 지키면 흥한 일은 피하리라. 51년생 작은 병도 잘 살펴보라. 63년생 인생의 방향에 큰 변화의 기회가 생긴다. 75년생 여유 있게 보내면 기회는 속히 온다. 행운의 숫자 : 04, 44

辰 40년생 흥한 일과 길한 일이 있지만 길한 편이다. 52년생 미우리를 잘하려 10%로 부족이 90%를 앓아간다. 64년생 이상이 더디거나 좋은 인연이 아니다. 76년생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해는 없다. 행운의 숫자 : 02, 43

巳 41년생 속과 겉 다른 일이 생기거나 차분하게 살펴야 좋으리라. 53년생 신중한 하루가 되어야 할 것이다. 65년생 여성으로 마음이 같았더니 중심을 찾았더라. 77년생 직장에서 천신만조 심하면 인기가 오른다. 행운의 숫자 : 19, 37

午 42년생 순리대로 행동하면 결과도 좋으리라. 55년생 주변의 도움으로 고민했던 일들이 잘 풀려간다. 66년생 이성으로 마음이 같았더니 중심을 찾았더라. 78년생 울고 싶은 일이 생기나 어려운 일은 아니다. 행운의 숫자 : 18, 32

未 43년생 쌓아온 명성이 자기 입으로 무너질까 걱정된다. 55년생 시비 구설수는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발생한다. 67년생 모르는 사람과 서비스수가 있으니 조심하라. 79년생 오래 동안 생각한 것 결정해도 좋다. 행운의 숫자 : 12,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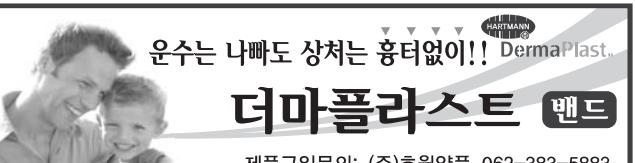
申 44년생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나 오히려 박해가 된다. 56년생 인생의 지름부터 다시 한 번 추진하라. 68년생 친구 같은 부자지간의 시간을 가져라. 80년생 남여사이에 적당한 간격을 두고 만나라. 행운의 숫자 : 13, 41

酉 45년생 아래와 남편은 서로를 살피야 할 때이다. 57년생 정면 부모보다는 우후의 공격力가 효과적이다. 69년생 아는 길도 물어가는 지혜가 있어야 손질이 없으리라. 81년생 삼사일원하면 악신도 피해간다. 행운의 숫자 : 23,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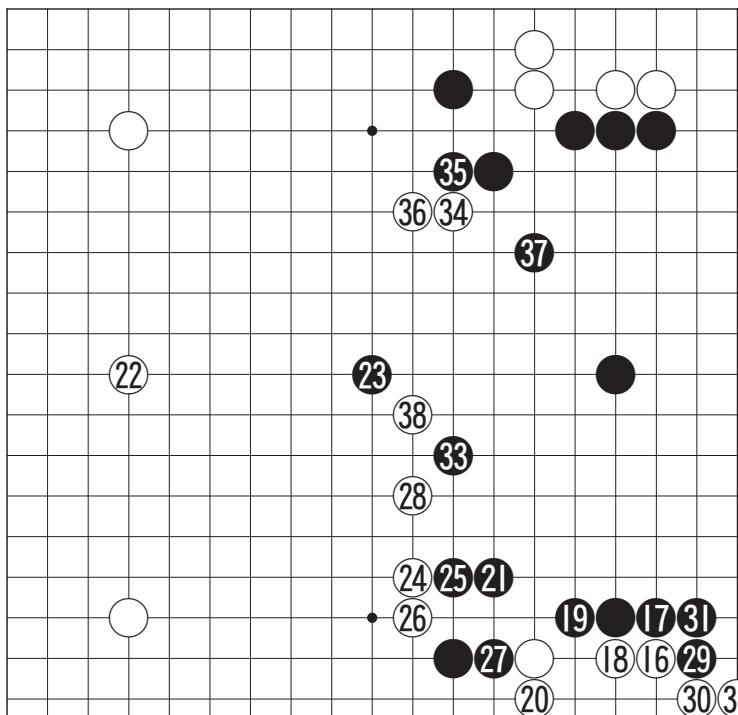
戌 46년생 힘의 안배를 고려하면 대고는 없으리라. 58년생 자신의 재주보다는 노력을 집중하면 실패는 없다. 70년생 마음은 단단히 가져라 대고가 예상된다. 82년생 아무리 친한 친구의 말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라. 행운의 숫자 : 20, 39

亥 47년생 혹시 하는 기대는 버리고 뜻을 분명하게 하라. 59년생 아들과 딸의 고민을 알아보라. 71년생 부부의 정은 아주 소소한 것에서 생긴다. 83년생 혼자서 바쁘지만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행운의 숫자 : 24, 27

www.cafe.daum.net/sajoo114 ☎ 011-632-6121



제품구입문의 : (주)호원약품 062-383-5883



제16회 광주일보 개인전 3·4위전

한박자 늦은 삽감 2보(16~38)

白 유흥주 5단 (KT전남본부 A) 黑 김영수 5단 (빛고을교사회)

3연성은 80년 은 완력에 자신이 있기 때문이다. 세대 '우주류'로 일 혁은 신기루와 같아서 흩어지면 남는 것이 없다. 지켜낼 강한 완력과 정확 으킨 일본의 다케 미야 9단이 애용 했던 포석으로 당 시 아마추어들 사이에서도 대우행 했던 포식이다. '중앙은 공배'라는 사고가 괭 배했던 바둑계의 흐름을 일거에 바꿔놓은 다케미야 9단의 대세력작전은 미지수로 남아있던 중앙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한 일대 사건이었다. 김영수 5단이 3연성을 즐기는 것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KYOBO 교보생명

바둑 소식

박자은, 명인전서 김혜민 제압

박자는 8단이 11일 스카이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9기 STX배 여류 명인전 패자조 3회전에서 김혜민 5단을 132수 만에 백 불계로 제압하고 패자조 결승전에 진출했다.

김 5단은 대리바에 박자는 8단에게 1-2로 패한 바 있어 설욕여부가 관심을 모았으나 이날 완舶함으로써 여류명인전에서 완전 탈락했다.

승리를 거둔 박 8단은 조혜연 7단-이다해 3단 대국의 패자와 패자조 결승전에서 맞대결한다. 현 여류명인은 루이아이웨이 9단으로 지난 6기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이래 지금까지 3연패를 달성하고 있다.

/윤경기자 penfoot@kwangju.co.kr

굿모닝 잉글리쉬 <990>

The rate is \$40 up 150 miles

비용은 150 마일까지는 40불입니다

A : The rate is \$40.00 up to 150 miles. After that, 8 cents a mile.
B : OK, fine.

A : Please, fill out this form. May I see your driver's license?

B : Sure, Here you are.

A : 비용은 150 마일까지는 40불입니다. 그 후로는, 1 마일 당 8센트입니다.

B : 네, 좋습니다.

A : 이 서류를 작성하여 주십시오. 운전면허증을 볼 수 있습니까?

B : 물론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 rate : 비용

* up to~ : ~까지

* driver's license : 운전면허증

* 언제 차를 돌려줘야 합니까?

= When shall I return the car?

* 수요일 오전 9시까지 가져오십시오.

= Please bring it back by 9:00 Wednesday morning.

오하요우 니혼고 <990>

仕方(しかた)なかったんだ。

어쩔 수 없었어

A : どうしたの。暇(ふく)がびしょ濡(ぬ)れだよ。
B : 駆(えき)を出た途端(とたん)に雨(あめ)が降(ふ)り出(だ)しちゃって。

A : だったら, 駆(えき)き返(かえ)せばよかったのに。

B : だって遅刻(ちこく)しそうだったから, 仕方(しかた)なかつたんだ。

部長の目が怖(こわ)くてね。

A : 어떻게 된 거야? 웃이 흠뻑 젖어 가지고,

B : 역을 막나오자 막 비가 내려버려서,

A : 그렇다면, 역으로 돌아가면 좋았을 것을,

B : 하지만 지각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었어. 부장님 눈이 무서워서.

びしょ濡(ぬ)れ: 흠뻑 젖다

出(で)た途端(とたん): 나가자마자(찰라)~~하다

降(ふ)り出(だ)す: 내리다, 내리기 시작하다

引(ひ)き返(かえ)す: 되돌아 가다(오다)

니하오 쟁구워 <180>

服务怎么样?

서비스는 어때?

A: 新开张的理发店在哪儿?
Xin kaizhang de lifadian zai nali?
新 开 招 章 的 理 发 店 在 哪 里 ?